

# 전북도,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참가

### 내일까지 고양시 일산서 개최, 전북 첨단 특화단지관 운영·소개 중심 첨단기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도내 이차전지 선도기업 첨단기술 등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도내 이차전지 선도기업 첨단기술 등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 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기업 전시관부터 첨단·소재부품 특화단지 등 테마관도 운영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한다.

이외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한다.

이외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한다.



## 전국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

### 총 26개 종목 500명 선수단 출전... 내달 3~8일 전남서 개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허윤정, 김정빈, 육상 전민재 선수의 대회 3관왕과 탁구 이근우, 백영복, 태권도 이동호, 휠체어펜싱 류은환, 보치아 김연하, 론볼 김승희 선수의 입상, 꿈나무 선수로 다년간 육상해운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의 3년 연속 3관왕과 신기록 수립이 기대된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는 18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도 장애인체육회 강경옥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종목 경기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졌다.

특히 사이클 박찬중, 이성순, 김경아, 최광수, 불림 이상준, 육상 모정태, 김혜경, 승마 서형석, 수영 원종인, 탁구 이현우, 최홍석 선수가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 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오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남 일원에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전북선수단은 31개 개 최종목 중 26개 종목, 5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구기종목에서는 남·여 좌식배구, 보치아, 창각축구, 지적농구, 휠체어 럭비, 개인종목으로는 사이클, 양궁, 태권도, 육상필드, 론볼, 보치아, 탁구, 휠체어펜싱, 파크골프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들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2022 한겨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사이클 이도연, 김용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 원터도 전수점검하고, 농축수 산물의 보온 조치 집중 홍보 등 피해 방지대책 마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 의료체계 구축, 한파 취약계층(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보호대책, 야외 근로자 등 피해 예방 대책도 수립한다.

## 겨울철 재난 인명피해 예방·재산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 전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재난 발생시 협력체계 구축·피해 최소화 논의 등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도·관·부서, 전주기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제35보병사단,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내 7개 유관기관과 영상회의로 1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협업 기능 강화 및 소통을 통해 관련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설로 인한 고립 등 긴급상황 발생시 민·관·군 협업을 통한 도민의 생명

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유관기관은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상황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 발생시 군·경 인력, 유관기관 및 민간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인명피해 및 도로, 농축산 시설 등 사유재산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했다.

겨울철 대상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고갯길, 경사로 등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등급별 제설대책과 상습결빙구간 지정·관리 및 교통사고 저감대책 등을 마련한다.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학주간' 21일까지 개최

2019년 개소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는 그간의 전북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2023년 전북학주간' 프로그램을 18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전라강변 일원에서 운영한다.

2023년 전북학주간 사업은 전북의 지역 정체성을 연구하는 '전북학의 전문가들과 전북도민들을 아우르는 '통합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전북학의 기초를 다지는 전문가들의 학습의 장과 이를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이외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한다.

일찌거나 종구(아외)/마당놀이: 응을 쫓는 사냥(아외)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5시에는 '특별회 최태성 강사를 초빙해 전라북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개특강이 선화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8~20일에는 전북학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성과발표회 및 학술세미나, 다양한 전북학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 전북학 연구와 전북학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한 예정이다.

축! 전주매일신문 창간 15주년 기념 광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중동로 365 | 대표번호: 063-620-1114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않는 병원. 친절하고 설명 잘 해주는 병원. 2019.12 - 2023.12.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1	지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 Call 체계 구축	063-620-1119
2	건강증진센터 One-Stop 시스템 구축	063-620-1160
3	장례식장 쾌적하고 정결한 시설	063-620-1140

**박주영**  
원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